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 FAX:(0343)470-3116 ● TEL:(0343)470-3155

내 한마음 밝으면 모두가 편안해져

☞ 13면에서 계속

딴 사람이 대신 와서 아파 줄 리가 없어요. 딴 사람이 만져줄 수는 있을지언정 대신 아파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생활 자체를 여러분이 겪고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이 행하고 있기에 여러분 자신한테 모든 것을 되놓고 가다 보면 숙달이 되고 거기에서 미묘한 법을 발견해서 감응이 되는 것이죠. 차차 감응이 된다면 그게 바로 성품을 발견하는 도리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본인들이 생각을 해봐도 더 잘 알 겁니다. 사람들이 진짜로 믿지를 않아요. 진짜로! 모두 믿는다는 사람들을 보면 건성이에요. 진실히 믿는 마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닿지 않나 봐요. 진짜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는다 신다를 떠난 그 가운데서 해결을 보는 거지, 내가 꼭 살아야겠다고 이름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름이나마 진짜로 믿고 또 그렇게 100% 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나는 진짜로 하라고 이를 뿐이지 내가 대신해 줄 순 없잖아요. 죽고 사는 걸. 내가 지금 당장 죽게 됐다 하더라도, 죽든 살든 그걸 떠나야 돼요.

하여튼 자신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믿었는가를 잘 점검해 보면 알 겁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되돌아보세요. 왜 나는 이럴까 저럴까 의심하고 방황하면서 남의 이야기에나 끄달리는가를 먼저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모습부터 제대로 살펴보고 어떤 것에도 걸리지 말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도, 이런 말들을 듣게 하는 것도 그 자리에서 나를 가르치려고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튼튼하게 이끌고 갈 수 있잖아' 하고 되돌려 놓을 수 있어야만이 제대로 중심이 선 자신을 통해서 가족을 돕는 일도 조상을 건지는 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자신이 너무 싫어요

문 스님, 전 어떡해야 할까요? 저는 나 자신이 싫어요. 너무나. 내가 처한 상황, 내 성격, 내 외모, 나의 무능함, 이 모든 것이 다 싫어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하루 빨리 이번 생을 마치고 다시 태어나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도 자주 하고. 현재의 나로서는 가질 수 없는 것을 계속 바라고만 있고, 자신이 한심하고 짜증스럽기만 해요. 해둔 것도 없이 나이만 먹어버린 지금 자신감있게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부럽기만 하네요. 나도 더 젊다면, 더 능력있고 똑똑하다면, 이런 생각만 하면서 하루하루 연명해 가고 있는 지금 괴롭기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예전에 어떤 시인이 봄을 찾아 밖으로 헤매다가 찾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집에는 복숭아꽃이 만발해 있었다고 합니다. 저 산너머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일은, 내달에는, 내년에는…하면서 잡히지 않는 것을 가지려 하고 또 이미 지나간 것을 안타까워하죠. 어떨 때는 내일과 저 산너머에 희망을 거는 것이 사람들에게 고된 현실을 살아나갈 힘을 주기도 합니다만, 그 희망은 존재하지도 않고 설사 존재한다고 해도 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어제께서 볼 때는 내일로 불리었는데, 내일이라고 기대했던 오늘 얼마만큼 행복합니까? 그런데도 내일이었던 오늘을 생각지 않고 또 다시 내일을 기다립니다.

내일과 저 언덕너머를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 다른 때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특별한 어떤 사람들만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신비스런 곳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자기 자신의 능력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봄을 찾던 시인이 자기 집에서 그것을 만났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먼 내일이 아니고 저 멀리 언덕너머가 아닌 바로 지금, 여기 각자 자기 자신에 의해서 그 진리는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체가 자기 근본 주인공 자리에서 나왔으니 다시 그 자리에 되 맡겨 놓는 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근본으로 되돌리는 것이 참된 공덕인 것입니다. 일체를 믿고 맡겨놓음으로써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근본은 곧 부처이자 진리입니다. 근본은 생사가 없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한 채 스스로 생사를 짓고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본래의 마음자리에 되돌려놓기만 한다면 스스로 고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될 수 있기에 나는 항상 누구를 보던지 그 자리에 믿고 맡겨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뇌망상 또한 공부할 수 있는 재료이므로 다가오는 모든 경계를 되 맡겨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방하착한다면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보지 않게 되는 것이니 그런 믿음으로 일체 경계를 놓아가기 바랍니다.

남편이 아이를 심하게 다뤄요

문 스님, 중학교 1학년인 제 큰아이와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질문을 올릴까 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 잘 지내다가도 느닷없이 남편이 아이의 책가방 검사를 하기도 하고, 공책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때리기도 하고 벌을 주며 제가 옆에서 들어봐도 아이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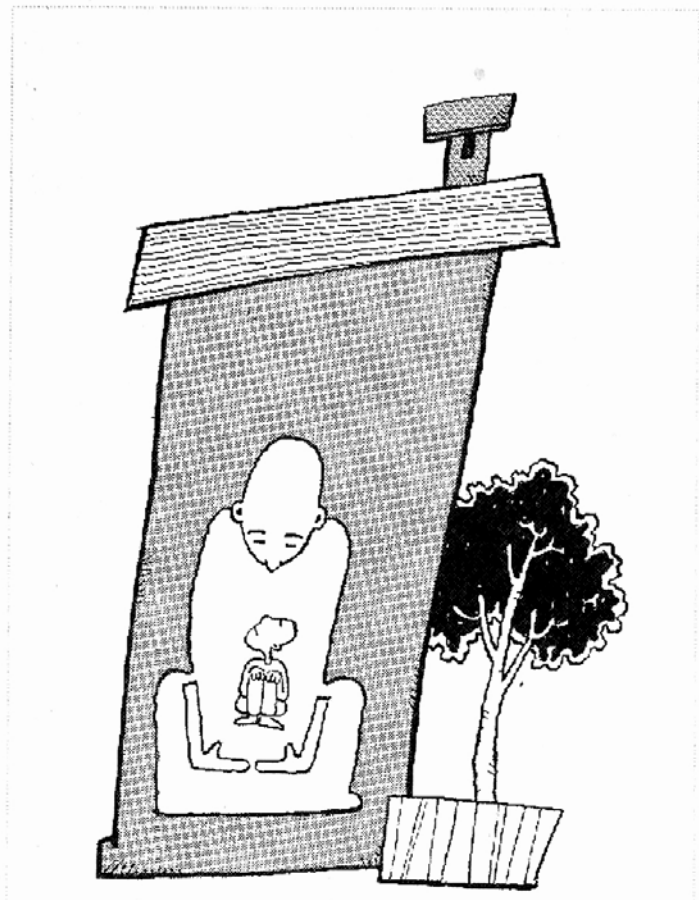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진리는 바로 지금 내가 있는 곳에 있어요
몸·물질이 아닌 마음으로 맡기고 관해야

저와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남편이 안타까와 몇 마디 하면 굉장히 싫어하고 아빠로서의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편에게 충고하지도 못합니다. 아이가 이제는 사춘기인데 더욱 걱정이 됩니다. 마음은 내고 있습니다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진실로 남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한 생각을 냄으로써 남을 진정으로 이롭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처음부터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자기 주인공에 모든 것을 믿고 놓는 것에서 시작되어 마침내 남에게도 마음으로써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한테 이익을 주려면 지혜로워야 되겠죠. 남에게 어떤 말을 전하려고 할 때는 이 말을 전해서 좋을까, 나쁠까를 잘 생각해서 말을 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남한테 이익되게 하는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망할 놈이라고 욕하는 소리를 들었어도 칭찬을 하더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욕한 사람도 자기는 욕을 했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참회를 하면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것도 천차만별이죠. 거짓말도 거짓말 아닌 거짓말이 있는가 하면 진짜 거짓말이 있습니다. 하여튼 착을 두고 살지 마세요. 착을 두면 오히려 거리가 생기고 참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착을 두지 않아야 조건 없는 사랑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오래 살고 늙었다고 해서 잘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판단에 의하고 기준에 의해서 애들을 나무라는 일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랑도 무엇인지 알고 정말 뜨거운 사랑을 자식들도 알 수 있고 부모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진짜 사랑을 하려거든 놔줘라. 부부지간에도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사랑한다면 놔줘라. 붙들고 있는 게 사랑이 아니다' 라는 말을 했죠. 여러분이 살면서 상대방이 모자란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아, 모자라는 것도 봐야 내가 모자라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니까 그것도 내 스승이다.' 하신다면 하다못해 풀 한 포기를 보고도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불법도 예전처럼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가정에서 남편은 남편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빗나간다 해도 결코 입으로, 몸으로, 물질로 다스리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마음에 맡기고 관(觀)하다 보면 서로 통하게 마련입니다. 이쪽에서 전화번호를 돌리면 저쪽에 신호가 올리는 것처럼 마음의 진실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사랑이요, 이 시대의 불법인 것입니다.

뇌성마비 딸 누워서만 지내

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 아이를 기르고 있는 32살의 주부입니다. 3년 전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예쁜 딸이어서 무척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뇌 기형에 의한 뇌성마비라는 판정을 받고 지금은 28개월이 되었지만 누워서만 지내고 있습니다. 거의 지능이 없는 상태여서 엄마도 알아보지 못하고 물론 말도 못합니다. 병원에서는 물리치료라도 받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큰스님, 제가 어떤 일을 해야할 지, 어떤 마음을 내야할 지 가르쳐 주십시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답 내가 항상 이런 말을 하죠. 다 같은 인연끼리 만난다구요. 즉 말하자면 과거의 인(因)으로 인해서 현재의 과(果)로 엮어진 겁니다. 보는 사람도 같은 인연, 또 그렇게 당하는 사람도 같은 인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는 사람하고 당하는 사람하고 둘이 아닌 까닭입니다. 그러니 끼리끼리 그렇게 은연중에 인과로 인해서 모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인과응보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느냐? 일체 모든 것이 직결이 되어있고, 이 우주 천하에 직결되어 있는 근본이 모두 사람의 마음에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직결되어 있는 주인공을 믿고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맡겨 놔라, 그 병도 거기에서 나온 거니까, 나온 그 자리에 다시 맡겨 놓을 때에 고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공에서 나온 거니까 주인공에서 고치게끔 맡기라는 말이죠.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듯이 말입니다.

자기가 길을 가다가 엎어졌으면 자기가 땅을 짚고 일어나죠? 안 그렇습니까? 누가 넘어져주고 누가 일으켜 주는 게 아닙니다. 본인들이 지어 놓은 거니까 본인들이 풀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거니까 그 자리에다 되놓는다면 바로 화(化)합니다. 물도 가스가 되듯이 화해 버려요. 그러면은 그 마음, 인과응보를 졌던 그 업이 그냥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는 거죠.

천도재에 밥·반찬 안 놓는 건 먹고 입고 거주하며 살던 습을 모두 멸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 다시 보살로서 재생이 되니까 그때야, 억울하고 누명 쓰고 저지른 일이 많은 그러한 인과응보가 다 그 자리에 선 스러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몸뚱이 속에, 대뇌 속에, 모든 생명의 의식들이 그때서야 활개를 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잘 공급을 해주고 회전을 하기 때문에 병 증세가 낫는 겁니다. 이건 그냥 말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곧 바로 실천입니다. 우리가 실천궁행하는 데에 노력을 해서 체험을 하고, 체험하면서 진실하게 믿게 되고 '아, 이런 거로구나, 작든지 크든지 용도에 따라서 일체만법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로구나' 하고 진실로 믿고 관해 나간다면 얻는 바 없이 얻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아쉬움이 있고 어떤 못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못났을 때, 내가 못 배웠을 때, 내가 가난했을 때, 내가 병자였을 때, 내가 미생물이었을 때의 내 모습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런다면 그 병 증세가 다 없어지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일입니다. 어느 신도님이 왔는데 지금 말하는 아이와 같은 경우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수술을 해야 되느니 안 되느니 하고 매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뿐만 아니라 외삼촌이 진실히 믿고, 그대로 실천을 해나가는데 그 정성이 참으로 지극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가보니까 이제 다 나아서 아주 훌륭한 어린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누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마음과 마음이 서로 계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방 통 안에서도 내 한마음이 밝으면 여러 사람들이 다 밝게 살 수 있게 되어있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런 도리를 깨우쳐서 살아나간다면 그 가정은 물론 가족들 모두 다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다면 다 밝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어두운 방안에 불 하나만 켜도 모두 다 밝게 살 수 있는 것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한마음이 밝으면 모두의 마음이 편안하고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는 이론으로만 흘러서는 안되고 오로지 마음으로 실천해야 되는 이치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괴로워만 하지말고 아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모든 것이 나온 그 자리에 일체를 맡기면서 열심히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제사를 집에서 지내려면…

문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우나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상생활 속의 현상들이 조상님들과 무관하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예를 든다면 취직을 했을 때 돌아가신 할머니의 따뜻한 배려가 느껴진다든가 하는 것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고인이 되신 할머니를 위하여 조상불공 또는 불교식의 제사를 드려주고 싶은 마음이 자주 들곤 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사정이 좋지 않아 집에서 정성껏 올리고자 하는데 준비물, 마음가짐, 의식 및 절차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나는 신도님들한테 제사(祭祀)를 지낼 때 거추장스럽게 준비하면서 불편한 마음으로 지내지 말고 간편하게 지내라고 합니다. 또 절에서도 천도를 시키고 재사(齋祀)를 지낼 때 간편하게 하라고 항상 이릅니다. 위패를 모시고 초, 향, 청수, 우주떡(선원에서는 우주를 상징하는 의미로 둥그런 떡을 올림), 세 가지 과일를 올리고 지내게 합니다. 생활이 어렵지 않은 사람들은 꽃 한 다발을 정성스레 준비해놓고 그 꽃 앞에 위패를 세우기도 하구요. 그리고 재사를 지낼 때는 언제나 재사상 옆에 큰 그릇에 물 한 그릇을 떠놓으라고 합니다. 그것은 내 몸속의 의식들, 즉 말하자면 의식에서 오는 집착이나 관습, 욕심, 이런 거를 다 씻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재사를 지내라고 일러드리면 어떤 분들은 재사를 지내는데 왜 음식이나 밥을 안 올리고 지내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주 떡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미의 떡이 아니라 우주를 삼키는 떡입니다. 그 하나에 모든 일체 생물이 다 들어있는 떡입니다. 모든 걸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과거나 미래가 그 현실 한 떡에 다 들어있다는 뜻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스님네들이 그냥 목탁이나 치고 염불이나 한다고 생각지 마세요. 그냥 밥이나 올려놓고 재사 음식을 많이 차려놓은 들 앞에 살던 습이 녹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살면서 먹고 입고 몸뚱이를 아끼고 또 집을 원하고 하던 것이 다 그냥 합쳐져서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의식이 착이 붙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식을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는 안 보이는 데서 설법을 하고 보이는 데서는 그렇게 하며 그 모든 것이 다 멸하게 하는 겁니다. 안팎에서 지내주는 거죠. 안과 밖을 다 그렇게 해드리고 자손들이 마음 공부를 하면 자손들을 통해서 조상들도 들고 나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공부가 시덥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조상님들도 그 뜻을 알고, 주위에서도 그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들고 나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체가 없기 때문에 항상 체가 있는 데에 접근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공부를 해서 벗어나면 12대 종손까지 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고 나는 데는 조상뿐만이 아니라 수억겁을 주인공에 넣는다해도, 넣어도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천도가 돼서 나가도 나가도 줄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기에 이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한 번 이런 공부할 수 있는 때를 생각한다면 그 인연이 천년에 한 번씩 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 생을 이런 공부를 해서 세세생생을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것처럼 큰 홍복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 지극한 마음으로 주인공에 관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언덕을 넘는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43-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